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해빙기대비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”

- 9일 「도시철도 광주2호선」 건설현장 방문 해빙기대비 안전관리 강화 당부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9일(목) ‘광주2호선 도시철도’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
 - 이번 점검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, 도시철도사업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였다.

-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“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구간에 대하여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는 한편, “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 - 이어, 도시철도 차량기지, 터널 시공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요 가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뒤, 현장관계자들에게 “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, 야외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신경써 달라”라고 덧붙였다.

- 끝으로, 이 위원장은 “도시철도 사업으로 광주지역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.

2023. 2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